

메시지는 '사랑과 평화'

23일 까지 아시아 문화축제
문화전당 일대, 공연·전시·포럼 등
20일엔 아시아문화페스티벌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미얀마 사태, 양안 갈등 그리고 한반도 핵위협 등... 지구촌은 어느 때보다 전쟁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긴장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그 때문인지 '평화'라는 말이 새삼 무겁게 다가오는 요즘이다. 평화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각기 다른 방식과 관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다. 과연 사랑과 평화는 구현하기 힘든 것일까.

올해 아시아 문화축제는 주제를 '사랑과 평화'로 정했다. 7일 개막해 오는 23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장장 이강현·ACC) 아시아문화광장 일대에서 펼쳐지며 공연, 전시, 회의 포럼, 행사교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펼쳐진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을 넘어 새 시대를 향한 아시아 문화예술인들의 다양한 생각을 토대로 전쟁과 질병을 극복하는 데 방점을 뒀다. 먼저 아시아문화광장에는 아트파빌리온이 설치된다. 예술가의 작품과 건축가의 공간이 어우러진 구조물로 카펫 이미지와 그네로 표현된 따뜻한 감성을 강조한 작품이다. 특히 아트 파빌리온을 받쳐주고 있는 아시아 카펫은 빛에 밝혀지는 잔상과 에너지가 수많은 라인의 결을 넣어 경쾌한 패턴들로 묘사된다는데 특징이 있다.

아시아 길거리마켓을 모티브로 펼쳐지는 '아시아아트마켓'은 아시아 각국 공예품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소장품을 직접 보고 소장할 수 있는 기회다.



지난해 아시아문화축제 장면.

ACC 제공

특히 축제 기간 제4회 아시아문화페스티벌도 펼쳐져(20-22일) 눈길을 끈다. '아시아의 잃어버린 얼굴을 찾아서'를 주제로 6개국 20여 명의 문학인들이 참여해 우리시대 잃어버린 가치와 회복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공연 5편도 만날 수 있다. 춤과 노래로 구성된 여인들의 이야기 '마디와 매듭', 한국 샤머니즘의 의례와 예술관계를 조명하는 실험 무용 '공허와의 만남', 광주시립발레단의 '돈키호테' 등을 감상할 수 있다.

아시아문화주간은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을 동시대적 관점에서 둘러 볼 수 있는 기회다. 전시는 이와 관련된 작품들로 구성됐다. 한국과 요르단의 시각예술을 만날 수 있는 '연대와 현대', 신안산을 비롯해 남도 문화유산을 현대 예술과 매체예술로 재해석한 '보물선 3.0-비밀을 여는 시간'도 기대가 되는 전시다.

무엇보다 베트남의 여성 숭배 문화를 조형화한 '녹색신화'는 기후 변화의 위기의 단면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자연 경외와 아울러 환경위기

가 초래할 문제들을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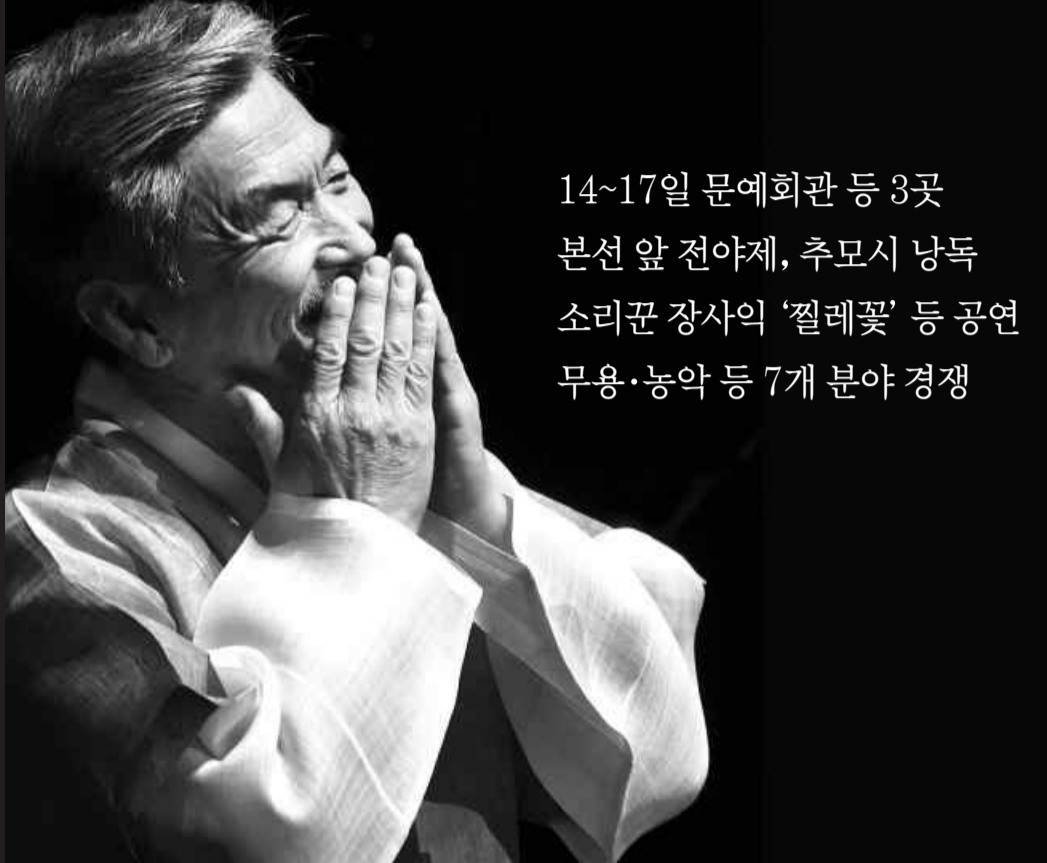
'지속가능발전과 문화'를 주제로 펼쳐지는 아시아문화포럼은 오는 12-13일 열린다. 오늘날 직면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일상을 공유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찾아보는 시간이다. 동남아시아 10개국 정부위원과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아시아무용위원회 회의'를 연다.

행사 교육도 풍성하다. 'ACC 카자흐스탄 이야기 그림책 북 콘서트' ACC TEEN 전시 연계 교육 '미디어아티스트', ACC 전문인 작군탐색 '사운드디자이너 되어보기'가 진행된다. 또한 ACC 배운인 링크인 'ACC-광주트라우마센터 연계 원예 치유 교육 프로그램', 아시아문화에 슬로교육 '아시아 뿔 로드', '아시아 국수 로드' 외에도 인문 강좌 '미디어아트, 생기를 불어넣다', 아시아특화교육 'ACC에서 튀르키예공예를 만나다' 등이 마련돼 있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 참조.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꾼'들의 경연 임방울 국악제



장사익

14~17일 문예회관 등 3곳
본선 앞 전야제, 추모시 낭독
소리꾼 장사익의 '짚레꽃' 등 공연
무용·농악 등 7개 분야 경쟁

국내 최대 소리꾼 전국 대회 임방울 국악제가 제 30회를 맞이해 성대하게 치뤄질 예정이다.

(사)임방울국악진흥회가 주관하는 임방울국악제는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빛고을시민문화관과 광주문화예술회관, 광주향교 등에서 펼쳐진다.

이번 임방울국악제는 전야제와 본선, 식전 행사인 임방울예술혼모시기, 임방울판소리장기장 등 다양한 부대 행사로 시민들에게 다가간다.

먼저 14일 오후 2시에 약 20분가량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되는 '국창 임방울 예술 혼 모시기'에서는 손광은 시인의 추모시 낭독으로 막을 열고 김준채 이사장의 헌화 분향과 임방울 선생의 예술적 업적을 기리는 의미가 담긴 훈장이 수여될 예정이다.

본선에 앞서 전야제도 진행된다. 같은날 오후 6시 20분 부터 90분 가량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전야제에서는 이 시대의 소리꾼 장사익의 명인이 함께해 무대를 빛낸다. 장 명인은 이날 '짚레꽃'과 '봄날은 간다'를 선보인다.

무대의 열기를 이어 그간 임방울국악제에서 대통령상 등을 수상한 30여명이 함께 무대를 만들어 간다. 왕기석 국립민속국악원장도 자리에 함께해 심청가 중 심봉사 눈뜨는 대목 등 임방울의 애창곡을 열창한다.

또 전통과 현대가 융화한 퓨전국악 프로젝트 양상별 '련'의 공연과 제 28회 농악일반부 국회의장

상을 수상한 김천농악단의 풍물판굿도 펼쳐진다.

또 이날 오후 7시 10분에는 광주 향교에서 아마추어 19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임방울 판소리 장기장기장이 열린다. 임방울의 대표곡인 '속대머리'와 '호남가', '추억' 중에서 한 곡을 선택해 선보이면 된다.

17일 열리는 본선 무대는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오후 12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열린다. 본선 참가자들은 학생부는 판소리와 기악, 무용, 일반부는 농악과 기악 등 7개 분야로 나뉘며 명창부는 판소리만을 두고 겨룬다.

이번 대회는 정부지원 시상 확대로 품격 높은 대회의 위상을 확립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정부 시상은 대통령상과 국회의장상, 국무총리상 각 1명과 장관상 4명이다. 판소리 명창부 대상에는 상금 4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손금 트로피가, 명창부 최우수상에게는 상금 2000만 원, 6개 종목 최우수상에는 400만 원이 수여된다.

광주 광산구 도산동에서 태어난 임방울은 나라 잃은 민족의 설움과 한을 노래한 음유시인이라는 평을 받는다. 임방울의 유성기 음반 '속대머리'는 100만 장이 넘게 팔렸으며 일본과 만주 등지까지 명성이 전해졌다. 민족사적, 판소리사적으로 가장 아득하고 쓰라린 시기 활동했던 임방울은 판소리 외 길을 걸으며 서민의 애환을 한스런 기락으로 대변했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 '춤선' 전국이 탄생

광주 대표팀 '댄스컴퍼니 Sun&Integral' 전국 무용제 대통령상

(사)대한무용협회가 주최하는 제31회 전국무용제에서 광주 대표 팀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생명'과 '남만도시 목포, 대한민국 춤을 잇다'를 슬로건으로 열린 제31회 전국무용제는 지난 9월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16개 광역시도 대표 무용가들의 참여로 목포시민체육문화센터에서 진행됐다.

전국무용제 단체상 대통령상 수상은 광주시를 대표해 출전한 댄스컴퍼니 Sun&Integral(안무: 선유라)의 작품 '인테그랄-Integral'이 차지했다. 개인상으로는 작품의 권거준 주역이 우수 무용수상을 수상했다. 수상작 '인테그랄-Integral<사진>'은 전체를 구성하는 일부, 하지만 빠져서는 안되는 필수 요소로 모이고 모여 완전체가 된다는 의미가 담긴 적분 기호 중 하나를 말한다. 작품은 사람과 관계에 대한 접근을 다루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갖가지 요소들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내는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를 언급하며 관객들로 하여금 '관계'의 목적지는 어디일까 하는 물음표를 던진다.

총 4장으로 구성된 작품은 각 장마다 관계에 대해 함축하고 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관계의 첫 시작을 다루는 1장과 레일에 탑승한 뒤 서행하거나 속도를 올리거나 잠시 정지하며 관계에 대한 노하우를 배워가는 내용의 2장, 3장의 '모든 인간관계는 노동이다'라는 언급과 함께 4장의 눈에 보이지 않는 조각이 쌓이고 쌓여 결과를 만드는 인테그랄처럼 나로부터 파생되고 연결된 레일의 구축까지 내용을 심오하게 다룬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 1 반경 1km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 7000여 세대 상권유입 가능
- 2 아시아문화전당 인접, 예술의 거리 및 음식의 거리 방문객 확보
- 3 사옥 5층 문화센터 상시운영 (골프클럽, 요가, 갤러리)가맹고객 확보
- 4 지하철 2호선 개통시 접근성 양호, 유동인구 폭발 증가



사옥 임대 문의
(영업지원팀)

MG골프클럽

구분	이용 기간	정상 이용료	금남새마을금고 이용자 할인 특가 (원)		
			30점 이상 (10%)	40점 이상 (15%)	50점 이상 (20%)
정기 회원	1개월	200,000	180,000	170,000	160,000
	3개월	570,000	513,000	484,500	456,000
	6개월	1,080,000	972,000	918,000	864,000
	12개월	2,040,000	1,836,000	1,734,000	1,632,000

* 이용자 할인 특가 문의 (영업지원팀)
* 락카비 - 월 10,000원 (6개월 이상 등록자 무료)
* MG체크카드 이용 시 이용금액의 5% 추가 할인 (최고 2만원 할인)
* 유명 골프 프로 레슨 중

5층 MG문화센터
회원 대모집
요가, 노래교실, 라인댄스 상시 운영 중